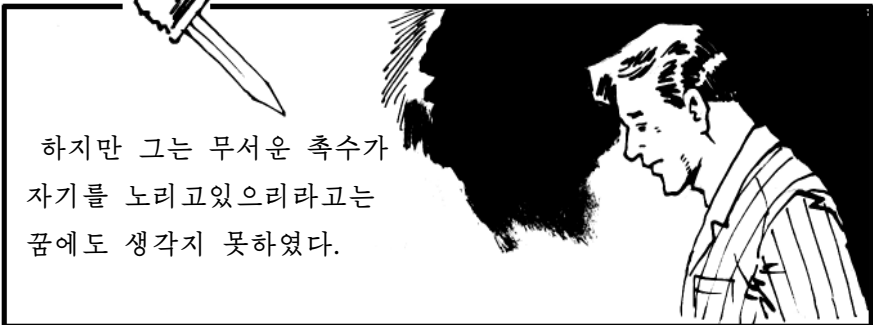
박철이 체포된 후 다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던 호성은 잃어진 자료들을 보충하기 위해 밤늦도록 일을 하고있었다.

하지만 그는 무서운 촉수가 자기를 노리고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나
둘
셋
넷

호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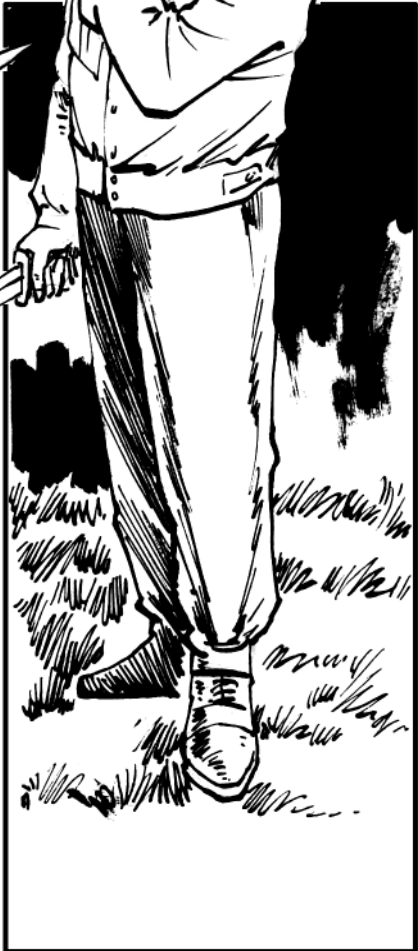
야!
빡
가만!
음

빡
얏!

여보시오!

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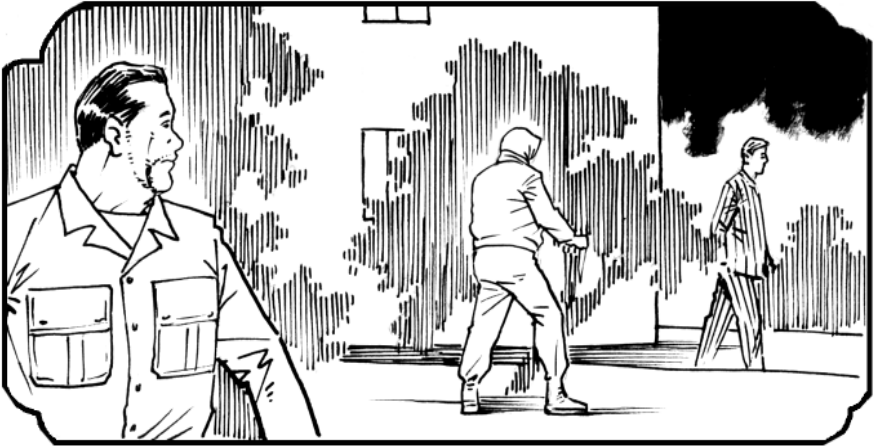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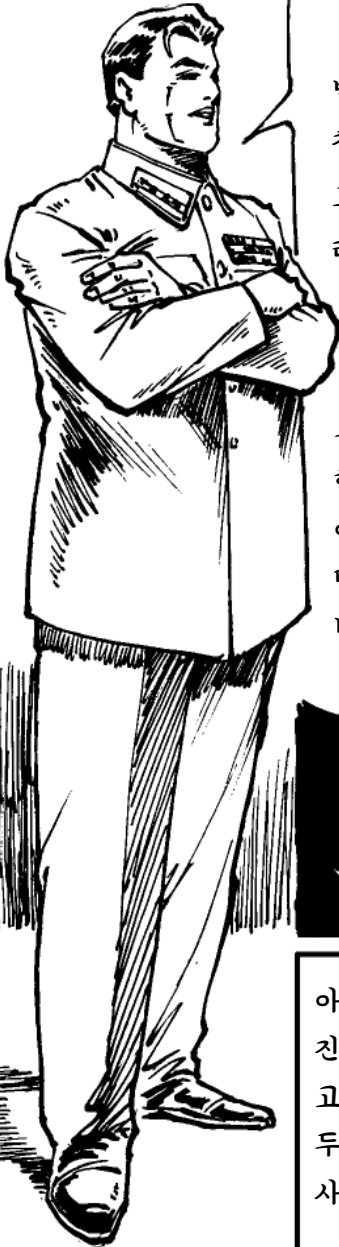
다치지
않았습
니까?
호성이,
난 일없네.
?
아!
순보아바이가?!
그래,
다친덴 없나?

없습니다. 그런데 아바이가 나때문에 이렇게?…
아바이는 도대체 누굽니까?
나 말인가?
그저 자네를 돌봐주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것두 모르고 지금까지 아바이를 의심했으니… 전 청맹과니였습니다.
발파공들을 책임지고 광산에서 왔다는 순보아바이— 그가 다름아닌 현철이였다. 그는 은밀히 위장을 하고 호성을 지켰으며 적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였던것이다.

사 무 실

과장동지!

현철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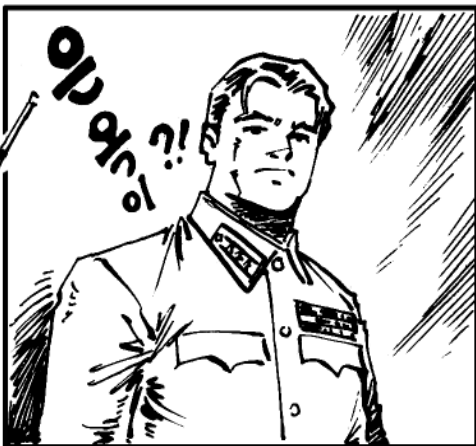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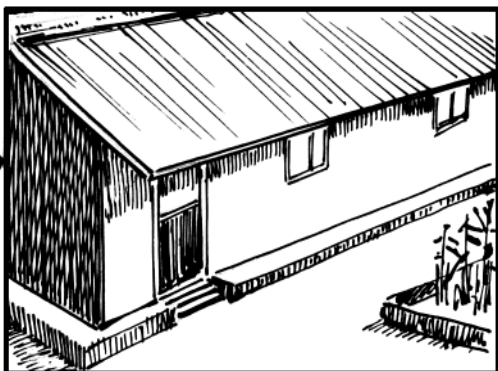
어제 새벽에 있은 일은 어떻게 된거요?

적들은 공사장에서 기어이 호성동무를 해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성동무의 안전을 위해 음료수에 약을 넣어 배앓이를 하게 하여 입원시켰던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감시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놈과 맞붙어 격투를 벌리게 되였는데 그놈이 불의에 권총을 꺼내들었습니다.

경두놈은 이십년전에 강도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된적이 있었소. 그후 친척방문차로 외국에 갔던적이 있는데 그때 적기관에 흡수되여 망책《쏘가리》와 련결되였을거요.
윤식에 대한 살인혐의가 있는 은옥이는 경두와 어떤 관계의 인물입니까?
아직 명백하지는 않지만 체포된 박철의 진술에 의하면 경두놈이 매수하여 써먹고있는 인물인것 같소. 자재과장인 경두놈이 국가물자를 빼돌려 많은 돈을 사취하자면 회계원 겸 창고장인…

은옥이를 끼지 않고서는 해 먹을수 없거든. 은옥이 역시 돈맛을 들이게 되자 오히려 경두놈의 손발이 되여 그놈의 졸개노릇을 하면서 제 욕심을 채운것 같소.
진평회사 부사장 박철이도 은옥이의 낚시에 걸렸을겁니다. 뒤에서는 물론 경두놈이 조종했다고 봅니다.
《쏘가리》는 이미전부터 호성동무의 주위를 맴도는 동무를 의심하고있었는데 어제 사건으로 동무는 완전히 로출된 상태요. 경두놈의 정체도 폭로된것만큼 이제 그놈의 움직임이 주목되오. 필경 《쏘가리》가 가만있지 않을거요.

지금 대상이 자기 집에서 나와 어디로 가고있다.

알았다.
계속 감시하라!

대상이 해안거리와 청계동 골목을 지나 은옥이의 집으로 가고있다.

은옥의 집
은옥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을 새겨듣구 잘 생각해봐.
난 여기서 떠날 생각이야.
떠나다니요?
어디루요?…

내
언젠가
말했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구 해외로
빠지자구.
해외로요?
갑자기 그건 무
슨 말이예요?

만약 그 작자가 지금까지 은밀히 나를 감시해왔다면 지난 시기 우리 둘이서 물자를 빼돌린 사실도 알구있을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찌감치 꼬리를 사리자는거예요?
그래, 국경만 넘어가면 우리 친척이 있어. 자, 보라구. 이 돈이면 우린 얼마든지 잘 살수 있거든.

난 은옥일 좋아해.
나하고 같이 가지? 응?
은옥일 여기다 두고가
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찾아온거
라니.
좀 생각해보겠어요.
제길, 생각
은 무슨 생각?
오늘중으로 국경
을 넘지 못하면
수사망에 걸릴수
있단 말이야.
참, 이런 성화라구야.
식사나 하구서 보자요.
난 아직 식전이예요.
그럼 빨
리 서두
르라구.
잠간이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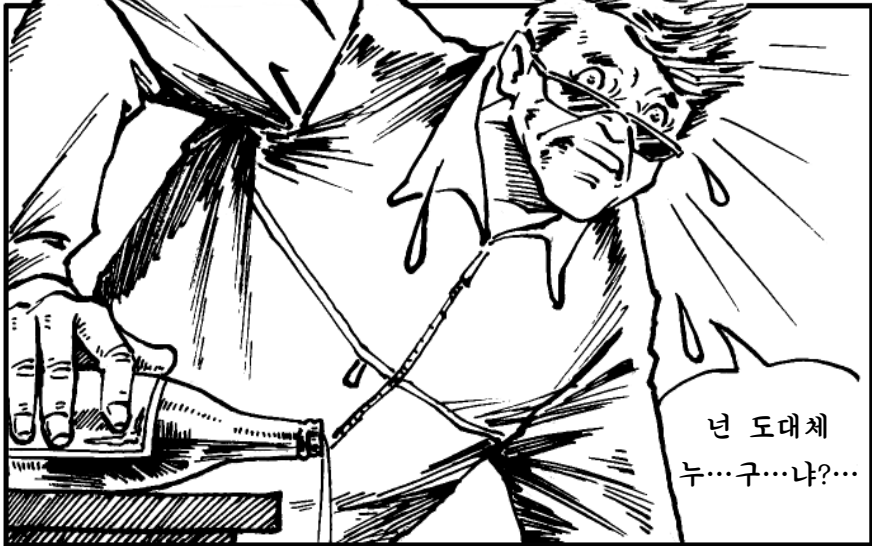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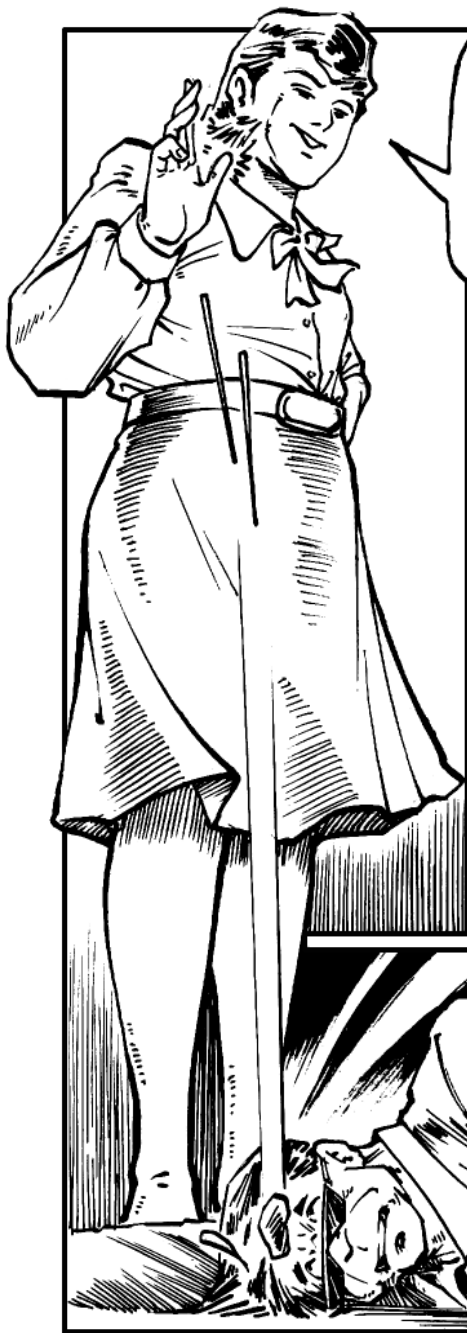
어떻게 한다? 저놈을
살려두면 내가 위태
로울텐데…

한술 요기를 하겠으니 그동안 술이라도 좀 하세요.

어서 드세요.

이게 혹시 리별주는 아니겠지?

걱정말아요.
난 함께 가
기루 작정했
으니까요.
그래?
그럼 그럴테지.
쭈욱
독약

네년이 독약을?!
흥! 임무도 수행하지 못한 주제에 꼬리를 사리겠다구? 살아서는 내 손에서 못빠져!
넌 도대체 누…구…냐?…
내가 바로 《쏘가리》의 비밀지령으로 지금껏 너에게 임무를 준 《날치》다!

네놈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데다
꼬리까지 밟혔으니 죽어야 해.
자, 마지막 고기안주다.
이히익
이렇게 죽다니…
털썩

5번, 5번.
나 8번.
은옥이만 밖으
로 나왔다.
거리쪽으로
간다.
나 5번. 8번은 은옥이를 뒤따르고 9번
은 집에 남은 대상을 감시하라.
꼬리가
달렸구나.

어떻게 한다?…

이때다!
휚
부리릉
아니? 내
승용차를?…

내 차를 훔쳐간다.
서라!

동무, 날 좀 도와주어야 겠소.

방금 달아난 차를 따라
잡아야겠소.
걱정마십시오.
5번, 5번. 나 8번.
대상이 승용차를 도적질해가지
고 도망치고있다.
해안도로쪽으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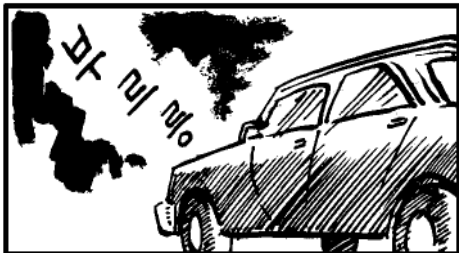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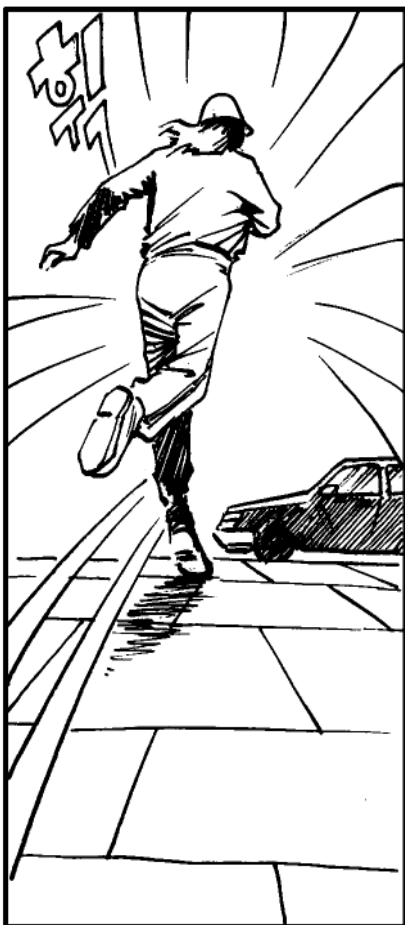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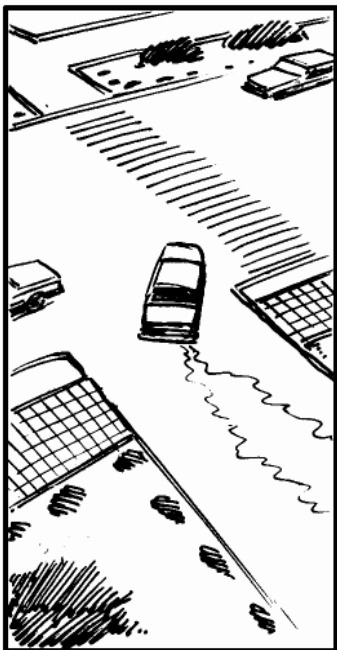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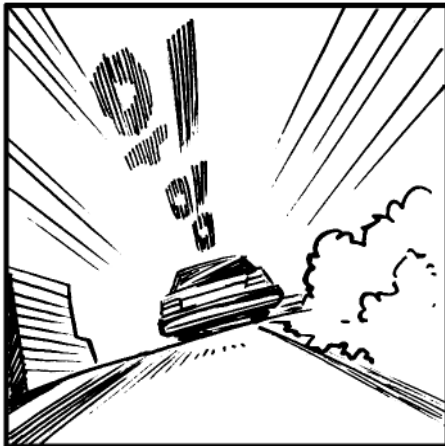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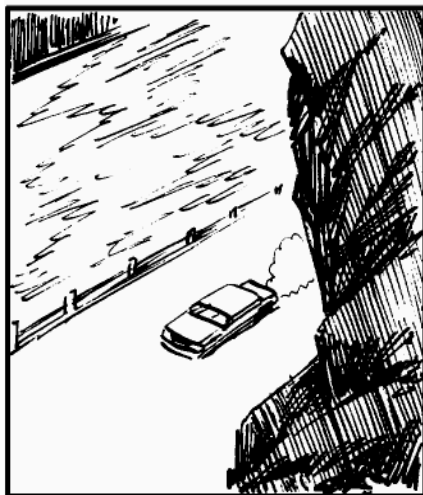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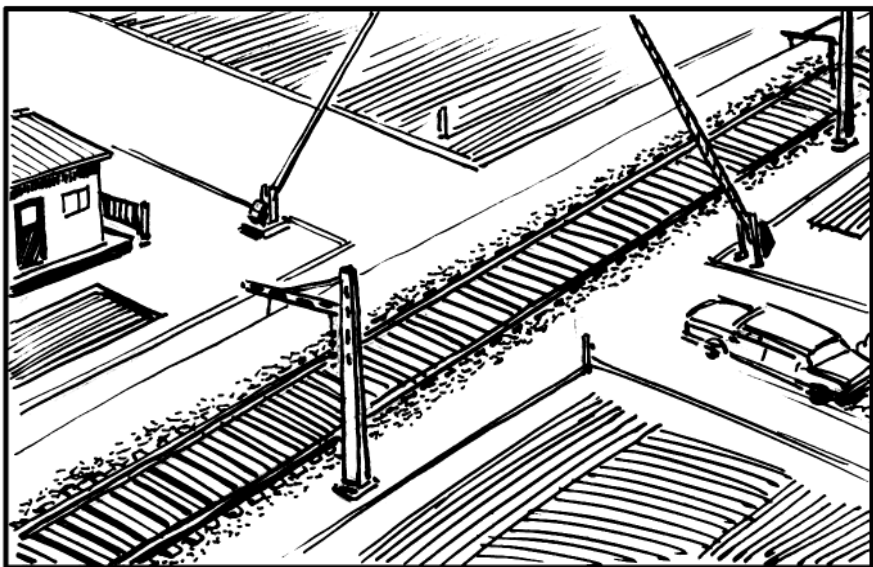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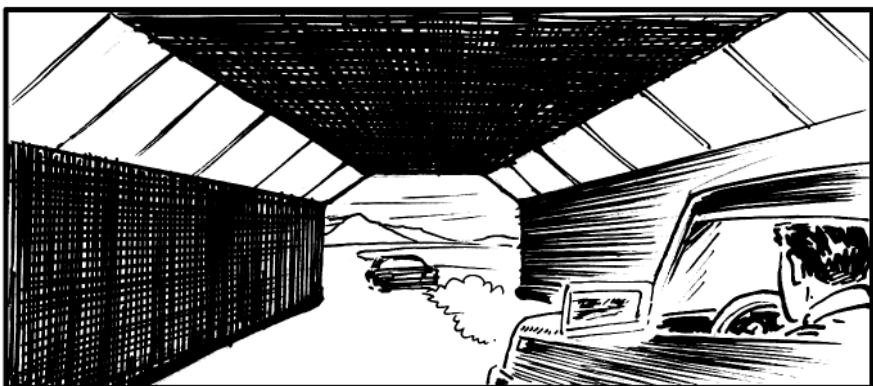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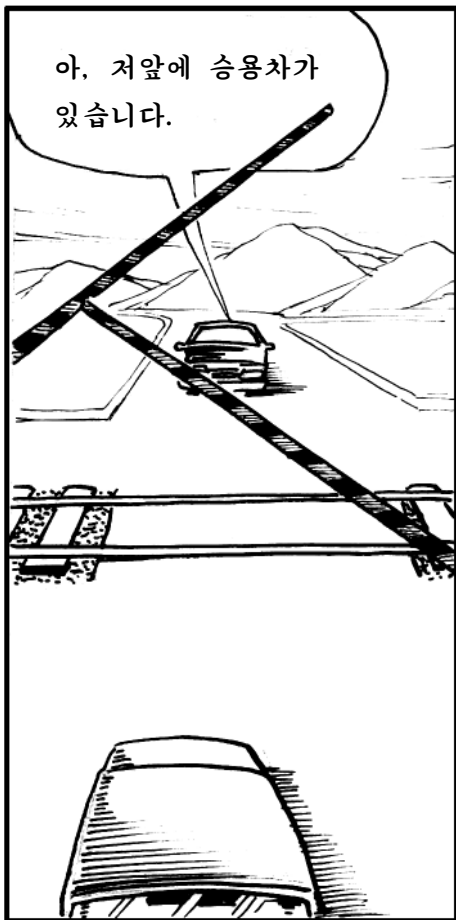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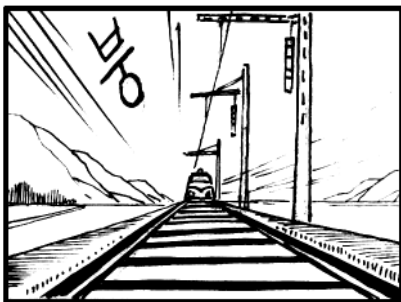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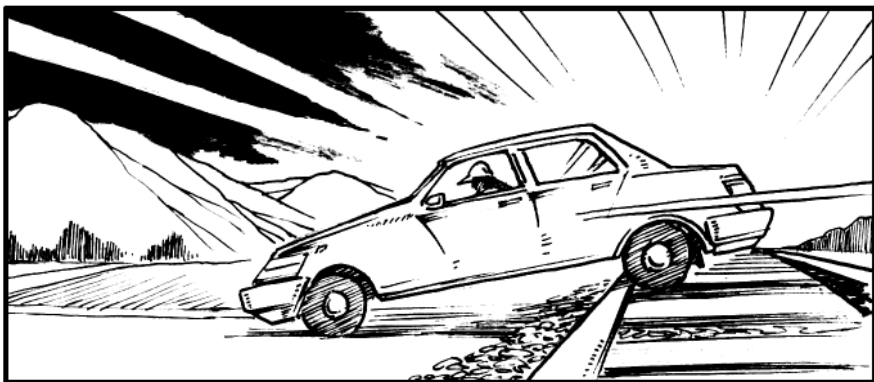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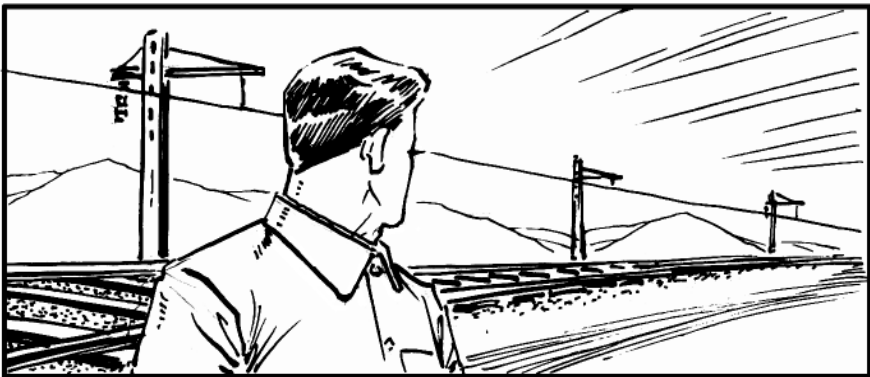
이웅

붕

아, 저앞에 승용차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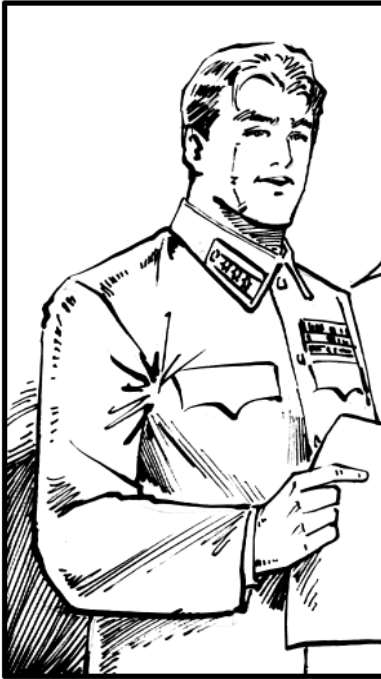
한발 늦었습니다.

?!

방금 지나간 렬차에 뛰여올랐구나. 교활한 년!

사 무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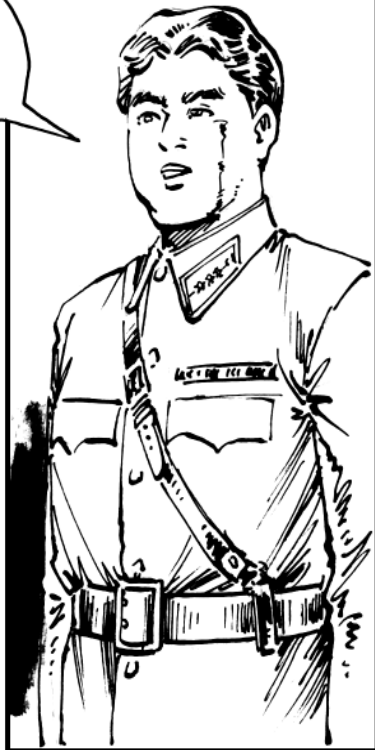
지금까지 본색을 감추고있던 은옥이년은 박철이 체포되고 경두가 드러나자 위험을 느끼고 선손을 쓴거요. 경두놈을 놀래우면 《쏘가리》가 가만있지 않을것이라고 타산한 우리의 추리는 옳았지만 지금까지 은옥이년에게 주의를 적게 돌린것은 큰 실수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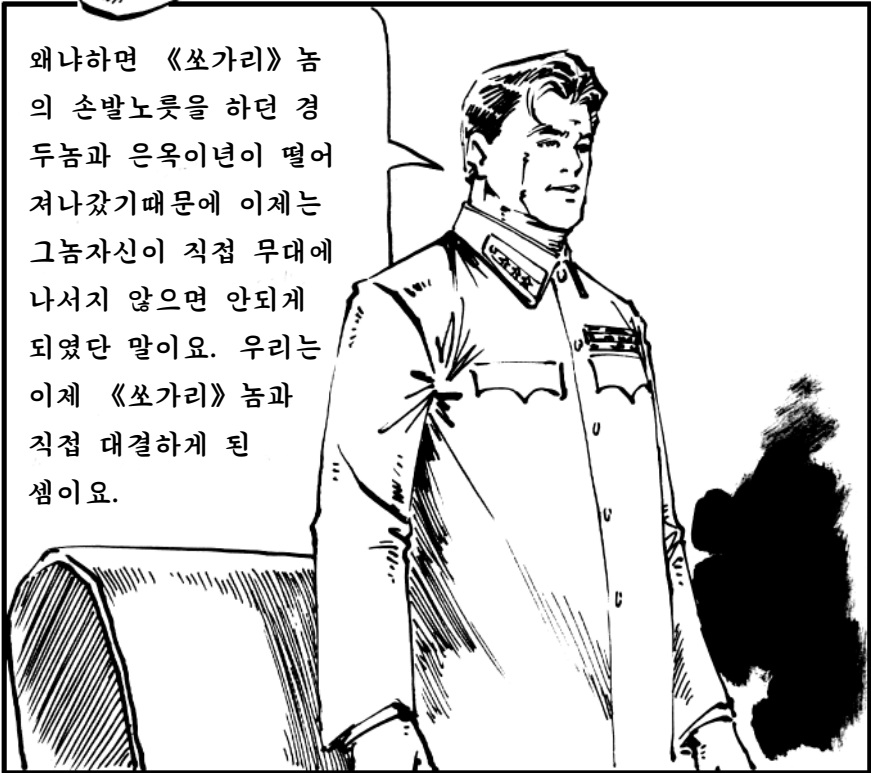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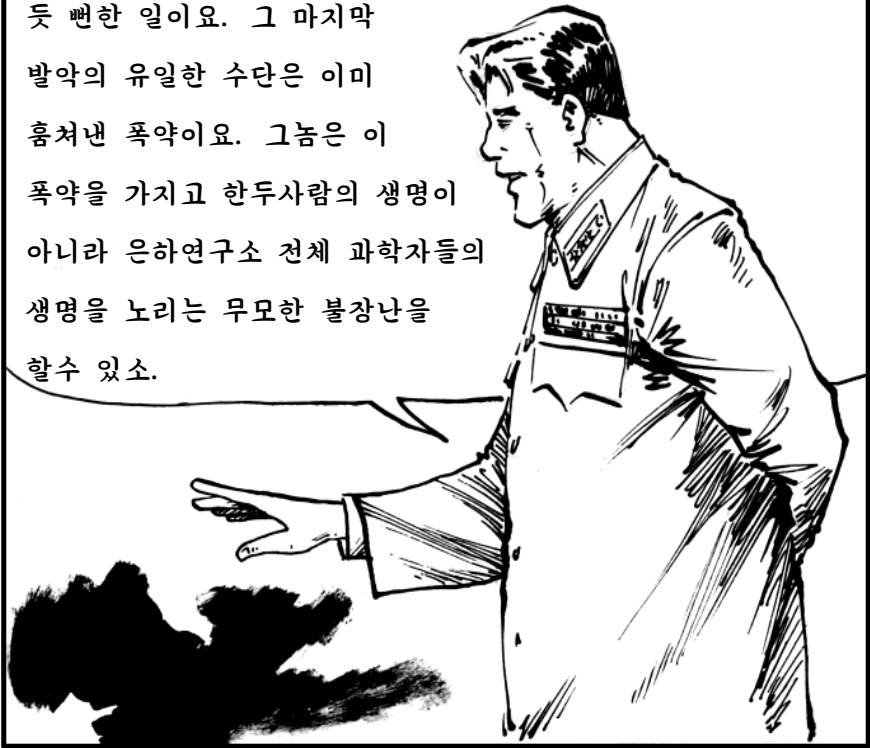
아니요. 그놈은 본부의 지시를 집행하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거요.

《안개작전》 말입니까?

상급의 통보에 의하면 날로 장성강화되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위력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 적들은 최근 우리 나라 첨단과학분야의 기술인재들을 제거하기 위한 모략을 꾸미고있소.
듣고보니 모든것이 명백해집니다.
지금까지 은하연구소에서 련이어 일어난 심상치 않은 사건들은 연구사 윤식이와 호성이 같은 과학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책동이였습니다.

윤식이의 경우는 호성이와 다르오.
윤식이는 돈과 재물에 현혹되여 타락하고 변질되였기 때문에 제스스로 죽음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진 것이나 같소.

이에 힘을 얻은 《쏘가리》놈은 《안개작전》의 첫 과녁으로 윤식이와 같은 새 세대 청년과학자인 호성이를 택했던거요.
말하자면 젊은 세대가 쉽게 변질되거나 굴복할수 있다고 타산했던거요.
하지만 호성이의 립장이 견결한데다가 우리가 제때에 손을 썼기때문에 놈들의 기도는 파탄되고말았소.

시험장에 기여든 박철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박철의 움직임은 우리의 시선을 딴데로 끌기 위한 위장작전이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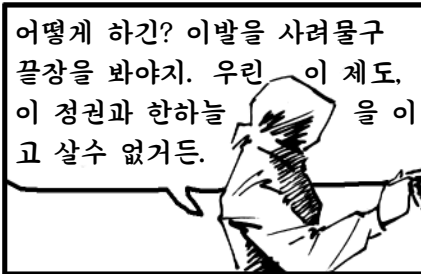
그 말은 옳소. 하지만 현 상황은 우리의 수사에 유리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보아야 하오.
왜냐하면 《쏘가리》놈의 손발노릇을 하던 경두놈과 은옥이년이 떨어져나갔기때문에 이제는 그놈자신이 직접 무대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단 말이요. 우리는 이제 《쏘가리》놈과 직접 대결하게 된 셈이요.

하지만 속담에 쥐새끼도 막다른 골목에 들면 고양이에게 접어 든다고 했소. 《쏘가리》놈이 마지막발악을 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요. 그 마지막 발악의 유일한 수단은 이미 훔쳐낸 폭약이요. 그놈은 이 폭약을 가지고 한두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은하연구소 전체 과학자들의 생명을 노리는 무모한 불장난을 할수 있소.

깊은 밤
문제는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이 폭약이면 《안개작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버지, 60여년간 아버지의 분부를 한시도 잊은적 없습니다.
우리 땅과 재물을 빼앗은 공산정권에서 피값을 받아내야 한다,
받아내야 한다,
받아내야…
받아…

깊이 숨은 《쏘가리》놈에게로 육박할수 있는 실머리를 어떻게 찾아낼수 있겠는가?
연구소에서의 폭파사고, 윤식의 죽음, 해외에서의 호성의 랍치, 연구소 문서고습격, 시험장에서의 폭파사고, 호성에 대한 병원에서의 살해시도… 이 모든것이 《쏘가리》의 작간인것만큼 여기에는 반드시 그놈의 흔적이 있을것이다.

호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여기에 기초해서 그 주위를 살피자. 거기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시라소니같은 놈,
죽어 싸지.
그놈은 줄창 해외로 도망갈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너무 일찍 죽였어.
좀더 써먹었어야 하는건데.
언니, 그 정황에서 어쩌는수가
없었어.
그놈이 꼬리를 달고왔으니까.

언니,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하긴? 이발을 사려물구 끌장을 봐야지. 우린 이 제도, 이 정권과 한하늘 을 이고 살수 없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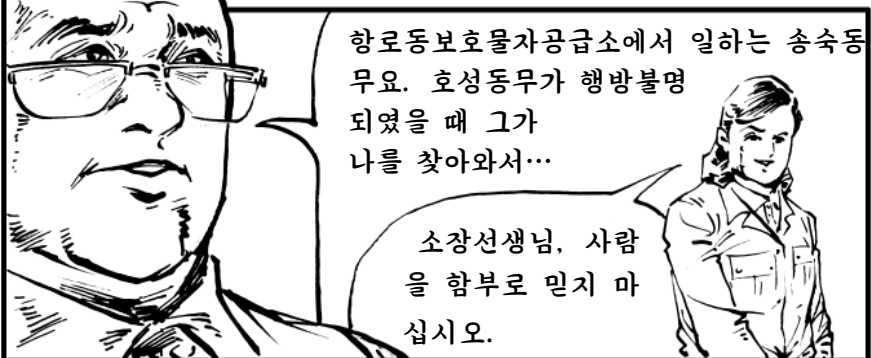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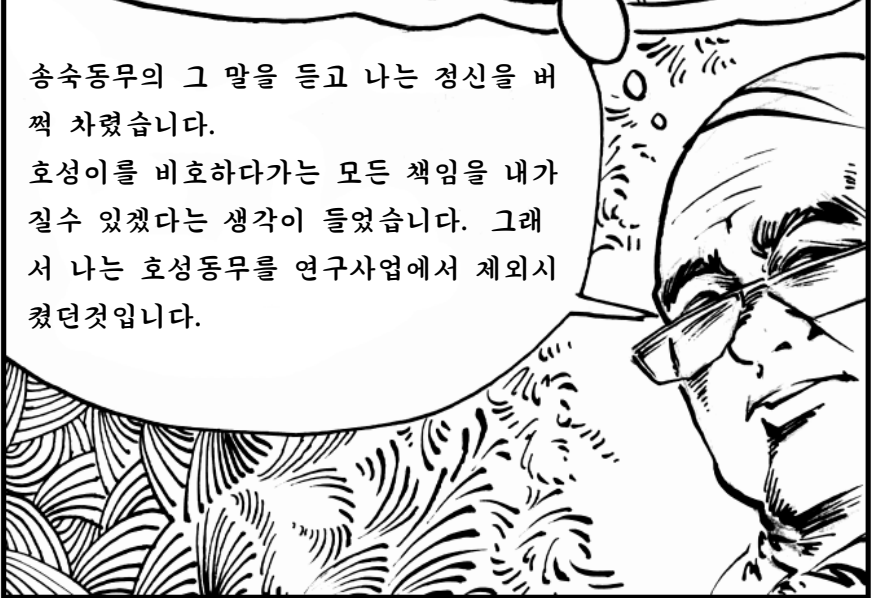
흥, 아무리 날구 뛰여도 내 정체는 밝혀내지 못해.
내 이제 《안개작전》을 어떻게 결속하는가를 두고봐. 머지않아 성공의 전파 가 날아가게 될거야.

난 수사망이 여기까지 뻗칠가봐 막 겁이 나.

은 하 연 구 소
소장선생. 선생이 호성동무를 연구 사업에서 제외시켜 수직갱공사장으로 돌려놓은것은 어떤 리유에서였습니까?

그 문제는 내 혼자 결심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론한것입니다. 더우기 과장동무와의 합의를 거쳤지요.
생각나지 않습니까?

전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소장선생이 호성이를 확고히 의심하게 된 동기라 할가?…

난 어떤 문제든지 절대로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중의 의견에 의거한단 말입니다.
대중의 의견이라구요? 그 의견을 제기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수 없을가요?
항로동보호물자공급소에서 일하는 송숙동무요. 호성동무가 행방불명되였을 때 그가 나를 찾아와서…
소장선생님,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이번 호성이의 행불사건은 윤식의 자폭사건에도 호성이가 관여되여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호성이는 윤식이의 밀매행위를 극력 감싸주고 조장시켜주다가…
갑자기 회의에서 비판폭로하였다고 합니다.

윤식이는 그때 정신적타격을 받
고 극단적으로 나간것입니다.
수군수군
송숙동무의 그 말을 듣고 나는 정신을 버
쩍 차렸습니다.
호성이를 비호하다가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질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서 나는 호성동무를 연구사업에서 제외시
켰던것입니다.

송숙? 그 동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녀성입니다. 대바르고 원칙적이고 사업에서 책임성도 높습니다.
연구소에서 송숙동무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영애동무지요. 물론 이웃집에서 나란히 사니까 그럴수 있겠지만 언니언니 하면서 친언니보다 더 따른답니다.
영애동무?!
송숙, 영애?

공 원

영애동무, 호성동무와의 관계는 다 풀렸습니까?

아이참, 지금은 일없습니다.

호성동무가 외국에서 행방불명되였을 때도 송숙언니는 나를 데리고 제가 직접 소장선생을 찾아가 호성동무의 사람됨을 보증해주었습니다.

뭐라구요? 그때 영애동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 문밖에서 기다리고 송숙언니 혼자 소장선생을 만났습니다.

사 무 실

영애와 헤여져 사무실로 돌아온 홍범은 무엇인가 중요한 실머리를 포착했다는 예민한 촉감으로 온몸이 흥분되였다.

그리고는 영애에게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침발린 소리를 했다.
앞뒤가 다른 송숙. 그는 과연 어떤 녀자인가?
간첩들은 모두가 2중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자신의 불순한 목적을 사람들앞에서 은페하기 위해 부득불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이름: 차송숙 성별: 녀자
나이: 35살 난곳: 강원도 원산시
가족 및 친척관계: 3살때 화재사고로 부모사망.
친척없음.
경력: 원산ㅇㅇ중학교, ㅇㅇ기술대학 졸업

내가 공연히 송숙을 의심하는것이 아닐가?

변덕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일수도 있지 않는가?
아니, 송숙에 대한 평가는 그가 결코 변덕스러운 녀자가 아니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다음날

동무들, 《쏘가리》의 기본목표가 은하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라는것이 명백해진것만큼 그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겠소.

난 이번 출장길에 송숙이 살던 고장과 학교들에 들려보자고 하오. 그러니 구체적인 토의는 그때가서 하기요. 덕만동무와 준호동무는 이미 분담된대로 자기 사업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현철동무를 방조해주도록 하오.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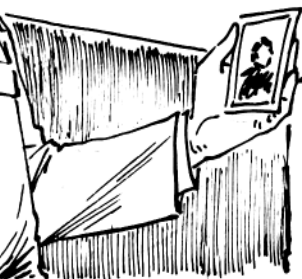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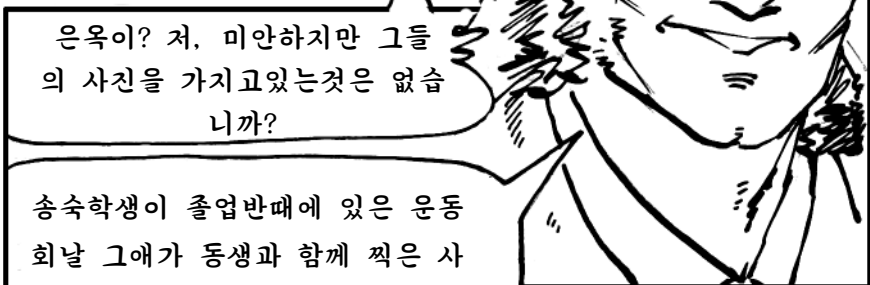
그럼 오늘 협의회는 그만합시다.

홍범은 먼저 송숙이 다닌 대학에 들렸다.
선생님, 이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송숙학생이군요.
송숙학생은 대학에서 수재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이악하고 탐구심도 높고 눈치도 빨랐습니다.
동무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동무들과는 좀처럼 섭쓸리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마 공부에 전심전력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체육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대학축구선수였고 특히 자전거를 타기 좋아했습니다.
태권도같은 체육 종목은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한번은 팔에 붕대를 감았길래 영문을 물었더니 태권도훈련을 하다가 좀 다쳤다고 하더군요.

송숙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선생님을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애 소식을 듣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참, 송숙학생의 동생은 잘 있습니까? 그애도 이젠 퍽 컸겠는데요.

그에게 동생이 있었습니까?
예, 은옥이라고 녀동생이 있었는데 송숙이보다 5-6년 아래였기때문에 그때 아래학년에서 공부했습니다.
은옥이? 저, 미안하지만 그들의 사진을 가지고있는것은 없습니까?
송숙학생이 졸업반때에 있은 운동회날 그애가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한장 있습니다.
아! 이건...

이 사진의 은옥이는 경두놈
을 독살하고 꼬리를 사린 그
은옥이년이 틀림
없다!
송숙과 은옥..
이것은 뜻밖의
실마리이다.
감정결과 사진속
의 송숙과 은옥이가
오늘날의 송숙과 은옥
이라는것이 확증되면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풀게 될것이다.

지 휘 소
사진감정결과 과장동지가 가져온 사진의 송숙과 은옥은 현재 항로동 보호물자공급소에서 일하는 송숙과 은하연구소 창고장 은옥이라는것이 확증되였습니다.
음!

송숙과 은옥의 관계가 밝혀짐으로써 윤식과 박철, 경두로 얽혀져 있던 많은 매듭들이 풀리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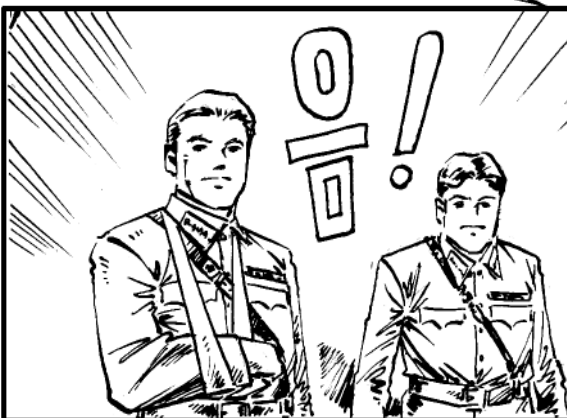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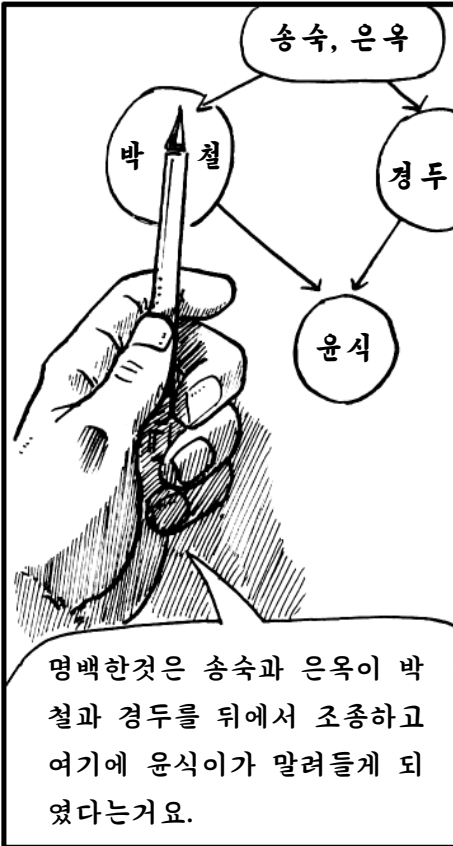
송숙, 은옥
박 철
경두
윤식
명백한것은 송숙과 은옥이 박철과 경두를 뒤에서 조종하고 여기에 윤식이가 말려들게 되였다는거요.

송숙이를 체포하면 《쏘가리》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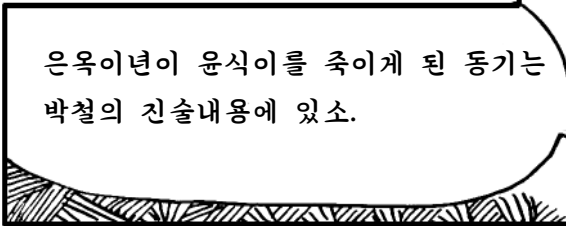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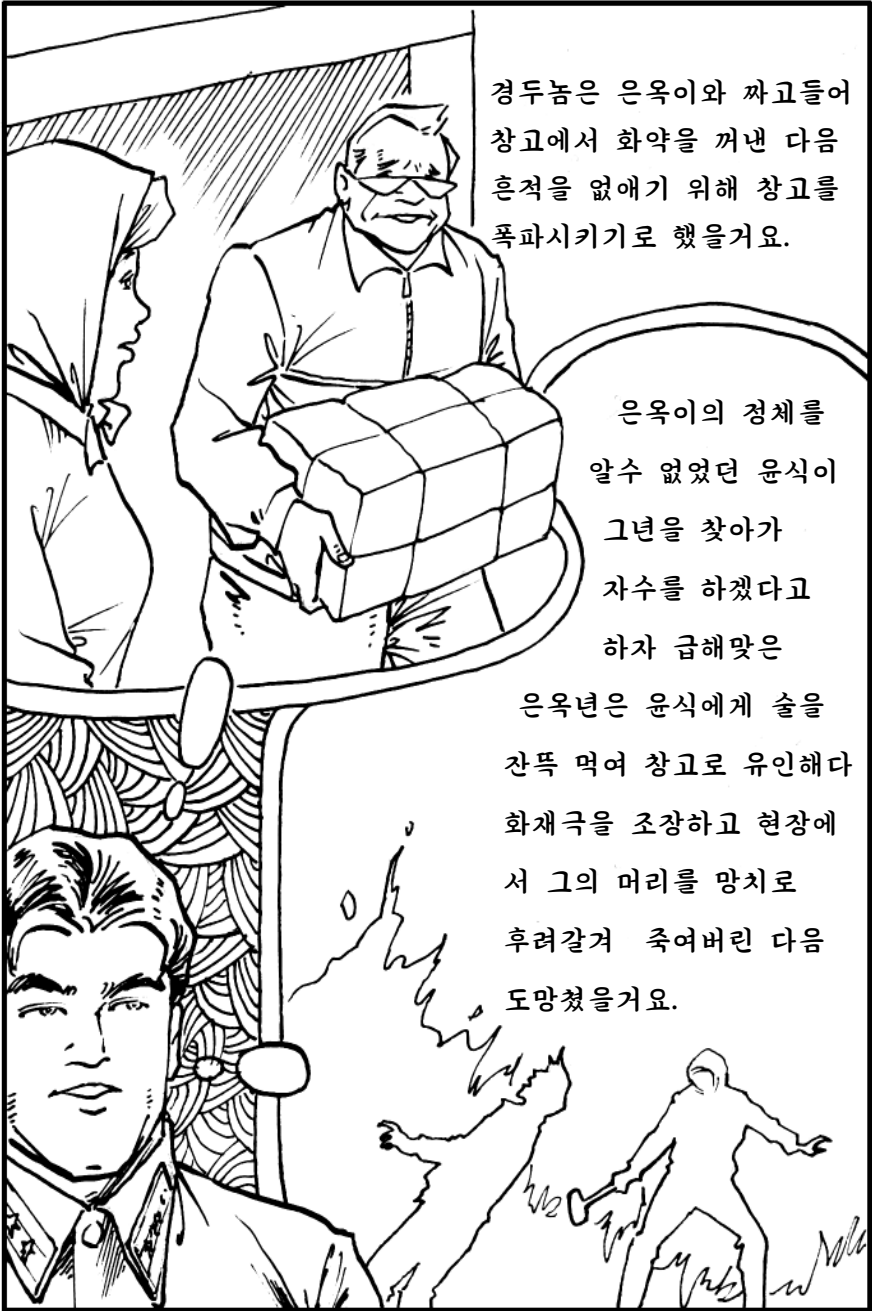
송숙이를 체포해도 《쏘가리》는 잡지 못할거요. 아직 근거는 없지만 송숙과 은옥이가 《쏘가리》의 딸년들일거라는 예감이 드오.

《쏘가리》

송숙, 은옥

윤식

왜냐하면 문건상에 어릴적 송숙과 은옥, 오늘의 송숙과 은옥이 다같이 고아였으며 양부모의 손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기때문이요.

송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태권도도 하고… 이것은 목적의식적으로 훈련을 했다는것을 말해주오.
망책《쏘가리》는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두 딸년들을 준비시켰을거요.
그렇게 놓고보면 윤식이를 죽인 범인이 은옥이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적으로 훈련한 년이 망치로 뒤통수를 까는것쯤은 식은죽먹기이니까요.
옳소!
은옥이년이 윤식이를 죽이게 된 동기는 박철의 진술내용에 있소.
화약을 훔쳐내라는 《쏘가리》의 비밀지령은 은옥이의 손을 통해 경두놈에게 전해졌을거요.

경두놈은 은옥이와 짜고들어
창고에서 화약을 꺼낸 다음
흔적을 없애기 위해 창고를
폭파시키기로 했을거요.
은옥이의 정체를
알수 없었던 윤식이
그년을 찾아가
자수를 하겠다고
하자 급해맞은
은옥년은 윤식에게 술을
잔뜩 먹여 창고로 유인해다
화재극을 조장하고 현장에
서 그의 머리를 망치로
후려갈겨 죽여버린 다음
도망쳤을거요.

윤식의 팔목단추에 끼여있
던 은옥의 머리카락은 그년
이 사건당시 윤식이를 유혹
하면서 그에게 안길 때
우연히 남게 되였을거요.

송숙년은 살인솜씨에 있어서 아마
은옥이년을 찜쪄먹을거요.
?!
그년이 얼마나 간교하고 음
흉한가 하는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되
여있었다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수 있소.
우리는 이 점에 특별히
주의를 돌리면서 그년과
대결해야 하오.

송숙년과의 대결은 곧 《쏘가리》와의 대결이요.
사건의 진상이 손금보듯이 드러난것만큼 이제는 우리가 주동에 서서 놈들을 함정속에 몰아넣어야 하오.
《쏘가리》
송숙, 은옥
박철
경두

송숙년이 폭약을 가지고 마지막발악을 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오.
하지만 교활하기 짝이 없는 그녀은 제손으로 직접 폭약을 들고다니거나 불을 달지는 않을거요.
우리는 이 공간을 잘 리용해야 하오.
사업분담을 합시다.

홍범은 현철과 준호, 덕만에게 그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의 구체적인 계획을 명백히 알려주었다.
한편 적들은 어떻게 하나 《안개작전》을 결속지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었다.

며칠후에 연구소에서 쟁쟁한 인재들이 모여 특수합금강연구 중간총화회의를 한다는데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돼.

하늘로 날려보
내자는거야?
어떻게?

내가 실패하는 경우
엔 네가 나서야 해.

내가? 지금 날 잡으라는 체
포령이 전국각지에
내렸겠는데…

수가 다 있으니
넌 내가 시키는대
로만 하면 돼.

연구소 정문
영애동무!
아니,
호성동무!
오늘은 수직갱공사장에
안가요?
응, 오늘
중간총화
회의에 참
가하라더
구만.

그럼 다시 특수합금강연구과제를 맡기려는게 아니예요?
응, 내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연구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오는 길이요.
무슨 알림글이 났군요. 같이 가보자요.

알 림
다음의 동무들은 오후 3시
중간총화회의에 참가할것.
김창구, 원성희, 계덕준
리형근, 백선남, 림호성
김명철, 장명춘, 김혜경
정영애, 남상준, 길복남
호성동무의 이름이 있군요!
영애동무의 이름도 있지 않소.
영애동무!
소장선생님,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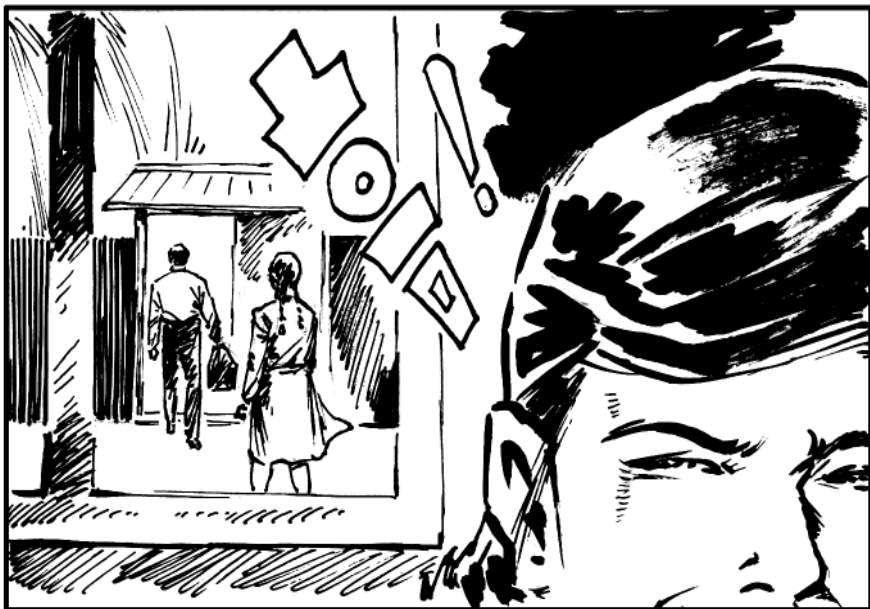
송숙동무한테서 전화가 왔댔소. 자기가 몹시 앓으니 영애동무를 좀 보내달라오.
송숙언니가요? 세게 아프답니까?
독감에 걸렸는지 밤새 열이 나서 한잠도 못잤다면서 영애동무를 꼭 보내달라구 신신당부하더구만.
알았습니다. 곧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보오. 앓을 때 곁에 사람이 없는 게 제일 섭섭하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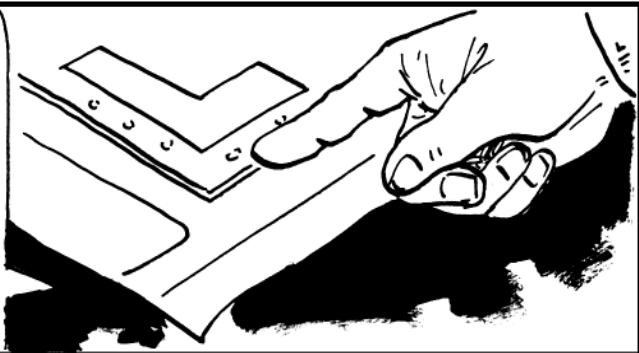
내 가방을 두고 나올테니 같이 가기요.

예, 정문에 서 기다릴테니 빨리 나오세요.

무슨 약이 요구
됩니까?

약은 일없어요. 참, 오늘
중간총화를 한다지?
소장선생이 오래전부터 날보구
연구소회의실의 마이크들이 낡
았다면서 좋은 마이크들을 구
해달라고 했댔는데 우리 공급
소에 마이크가 들어와야지…

오늘 회의때 써보구 이상 이 있으면 오늘중으로 가 져와. 바꿔야 하니까.
책임적으로 전달할테 니 마음놓고 치료를 잘하십시오.

마이크들을
가져갔어요?
응, 이제 이 원격단추만 누르면 쾅! 할거야.
자, 이젠 우리도 준비를 하자.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그땐 지체없이 2방안으로 넘어
가야 해. 이리와서 내 말을 명
심해들어.

너도 알겠지만 이건 연구소담장이구 앞의 건물은 회의실이야. 그앞에 나무 한그루가 있어.

정각 3시에 회의가 시작돼. 그 이후에 폭탄이 터지게 맞춰놓았으니 그때 원격단추를 누르면 돼. 만약 폭탄이 터지지 않으면 2층 3번째 창문과 일치한 이 나무에 올라 폭발물을 던져넣어야 해. 난 담장옆의 길가에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대기하다가 네가 담장을 넘어 나오면 같이 철수하겠다. 그다음 오솔길을 따라 산으로 붙으면 누구도 우릴 찾아낼수 없어.

자, 그럼
떠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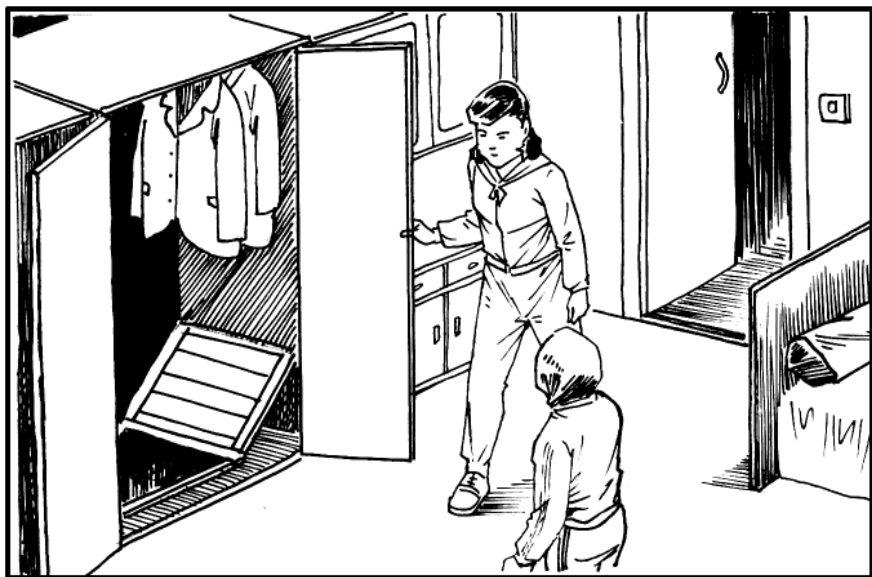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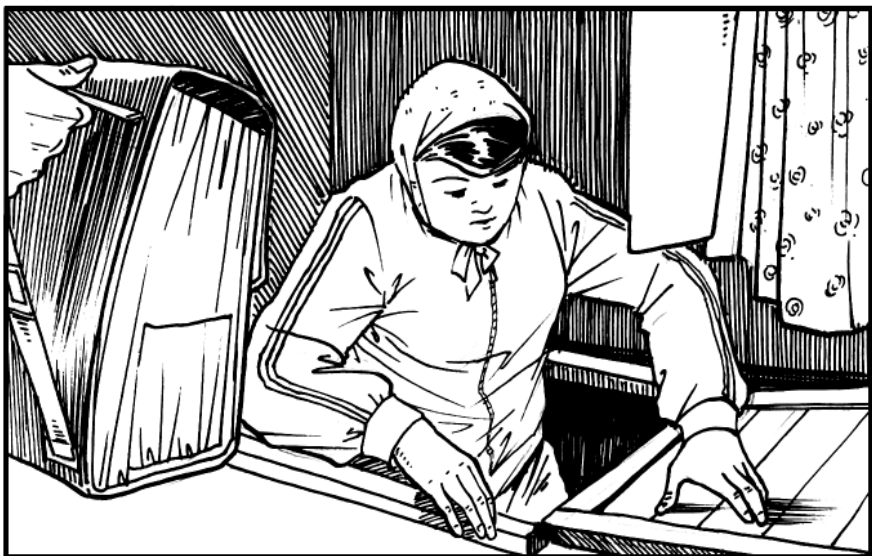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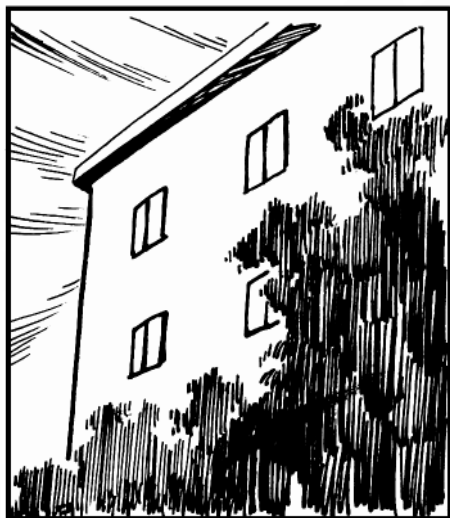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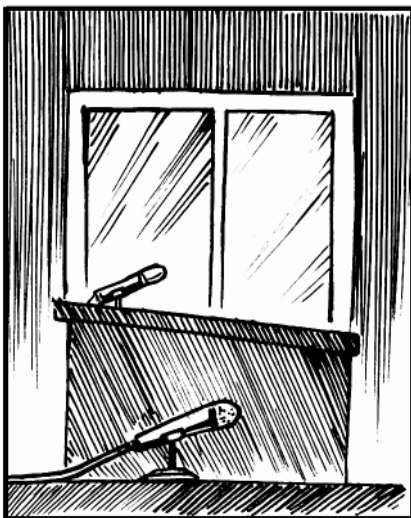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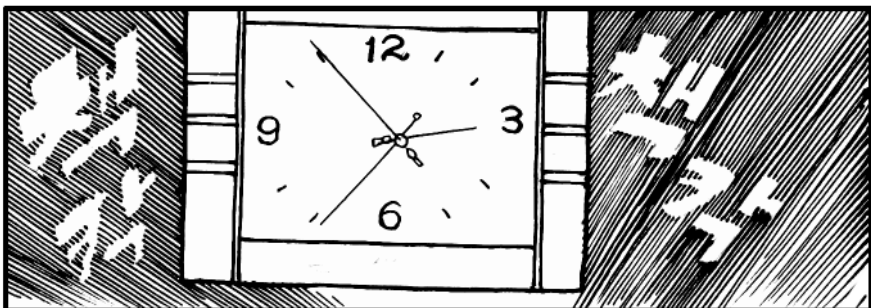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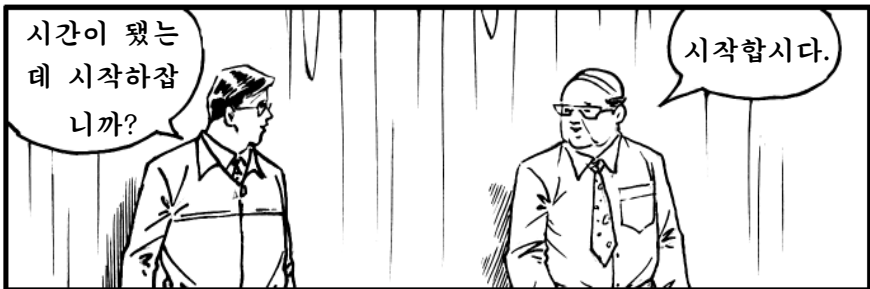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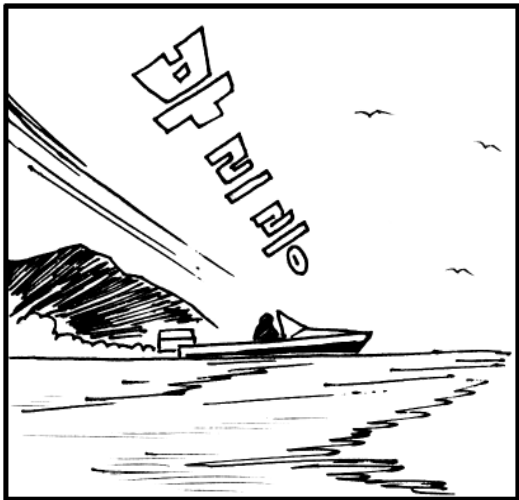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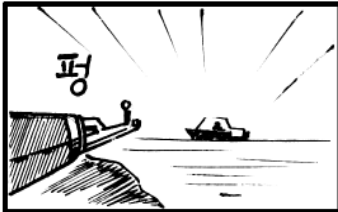
연구소 회의실

시간이 됐는데 시작하잡니까?
시작합시다.

지휘소
회의가 시작되였습니다.
참가대상중에 빠진 사람은 없소?

출근은 했는데 몸이 불편하다고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음, 우리의 추리가 옳았소. 《쏘가리》는 공장의 강력한 두뇌진이 모두 모이는 이 회의를 노렸던거요. 그 거사가 성공하면 적들은 아마 《쏘가리》의 동상이라도 세우겠다 할걸.
허허…

과장동지, 1호대상이 배를 타고 떠납니다.
8번, 8번. 바다가 2호지점에서 1호대상이 쪽배를 타고 출발한다. 발신장치를 설치하라.
펑
부르릉

1조 들으라. 송숙의
집을 수색하라.
2조는 연주소주변
감시를 강화하라.
3조는 2방안대로 행
동하라.
?!

5번. 송숙의 집에서 벽장지하통로를
발견했다. 대상이 지하도로 빠져나
갔다. 지하도방향은 동남쪽이다.

현장을 봉쇄
하고 나머지
는 철수하여
《ㄷ》지구
로 기동
하라.

광식동무의 조가 현장을 봉쇄
하시오. 나머지는 철수!
알았다.

《ㄷ》지구
로 출발!

2조 들으라. 대상이
집에서 빠져나갔다.
거기로 갈것이다.
준비하라.

알았다.

한 편
저벅
저벅

아직 멀었어?
조금만 가면 돼.

도대체 어디로 가는거야?

오토바이를 숨겨둔 곳으로 가고있어.

조용해,
빨리 나가자.

자, 이젠 떠나자!

명심해. 폭탄이 터지면 우린 제꺽 빠져야 해.

알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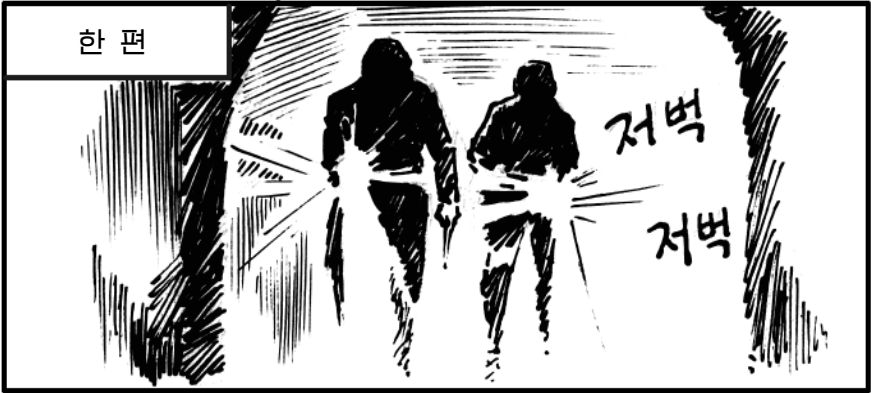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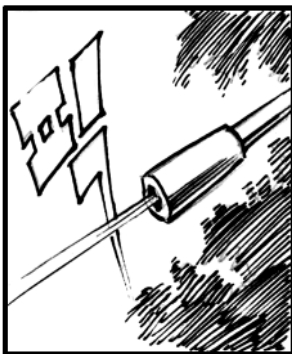
발신장치를
설치했다.

시간이 됐어. 단추를 누르자.
삑
꽝

성공이다!
빠지자!

5번, 나 8번. 대상이 회의장을 폭파하고 탈출한다.

알았다. 전원 철수하여 《ㄷ》 지구로 기동하라.

알았다.

8번 들으라. 대상이 동진항으로 간다.
바다로 빠지려 하고있다.
순찰정을 동원하여 대상에게 발신장치를 설치하라.

알았다.

부르릉

언니, 우릴 보고 그래요.
뽀트를 세우시오!

뭐?

부릉
할수 없지. 세웠다가 보자.

어디 배요?
동진수산배예요.
어디로 가오?
룡포에 가요.
가시오.

퍽
쉬
과장동지, 대상이 계속 남쪽으로 나가고있습니다.
1조 들으라. 《해연》을 보내 대상이 공해로 빠지지 못하게 하라.
알았다.
부르릉

언니,
직승기야.
안되겠구나. 아버지가 비상련락지
점에 나와있는 시간이니 거기에
갔다가 밤에 빠져야겠어.
뭐라구? 아버지한테?
그건 안돼! 위험해.
할수 없어. 지금 우리가
빠질 길은 그길밖에 없어.

과장동지.
대상이 수양
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1조, 2조, 3조 전체 들으라.
작전지역은 수양섬이다.
모두 기동하여 위치를 차지하라.

아버지, 우리가 왔어요.

《안개작전》은 성공했어요. 공해로 빠지려다 길이 막혀 할수없이 여기로 왔어요.

뭐? 성공? 흥!
완전실패다. 실패!
실패라니요?
아니, 그럴수 없어요. 회의장이 폭파되는걸 내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두요?
폭파야 됐겠지…
하지만 그건 다 미끼였다!
우리가 속히웠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절대로 그럴수 없어요!
닥쳐라! 조금전에 낯선 사람들이 이 섬에 올랐다. 너희들때문에 《쏘가리》의 비밀아지트가 폭로되였다는것도 알았다.

《쏘가리》망은 끝장이다. 하지만 걱정말아. 너희들이 살아남아서 끝장을 봐야 한다.

빨리 저 굴로 해서 여기를 빠져 나가거라. 통로끝에 잠수도구들이 있다.

그럼 아버진?
내 걱정말고
빠지거라.
빨리!

?!

여기서 해수욕을 하려오?
반항해야 소용없다. 손들엇!

이얏
네년들이
감히?
얏
홱
준호!
에익!

야야

딱
쩍

첨벙

땅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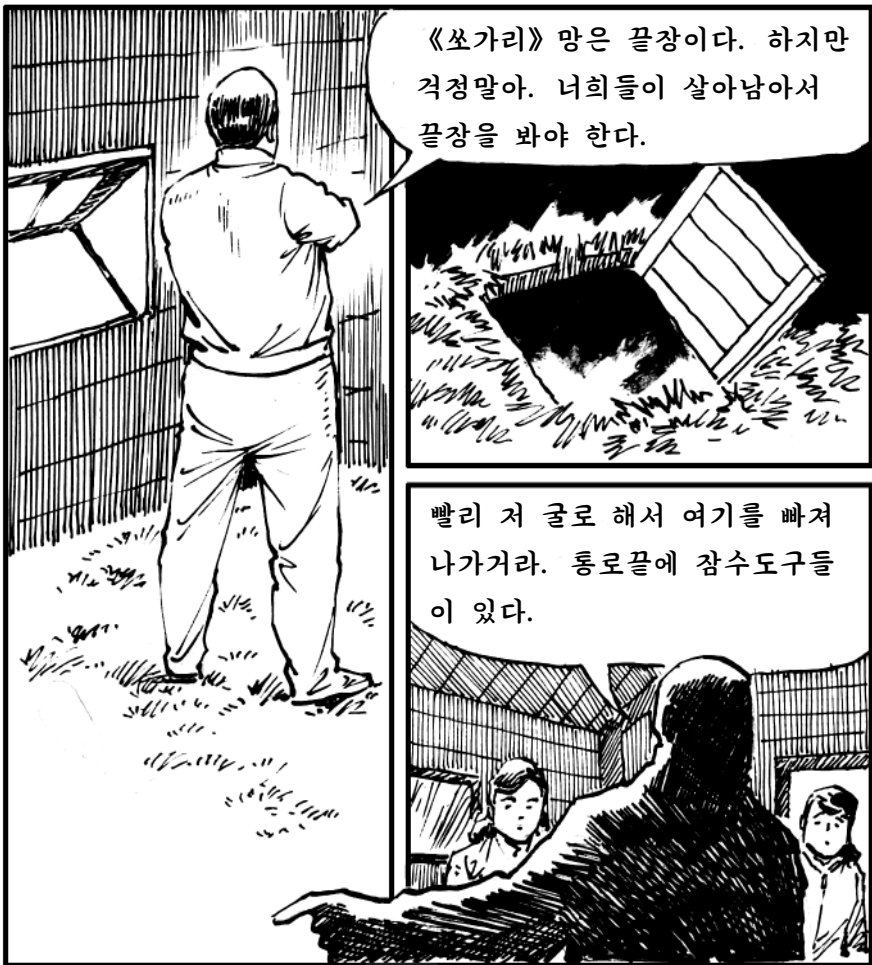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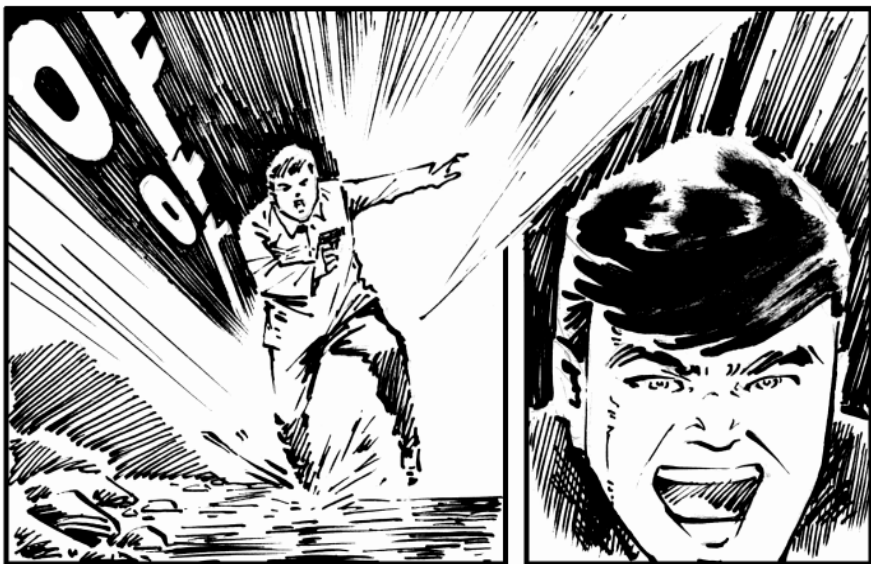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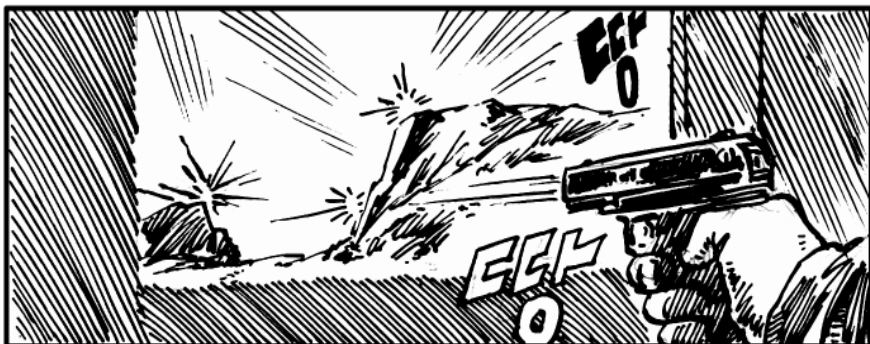
저항해야
필요없다.
손들고 나
오라!
퐁
퐁

땅
땅

땅
땅
탄알을 아꼈다 관속
에 지고가겠니?
한방이라두 네놈들에
게 날려야겠다.

철컥
이젠 끌장
이로구나.
으흐흑…
빼앗긴 땅을 되찾자구 수십
년간 벼리여오던 이 손에
수갑을 채우다니…
원통하기 그지없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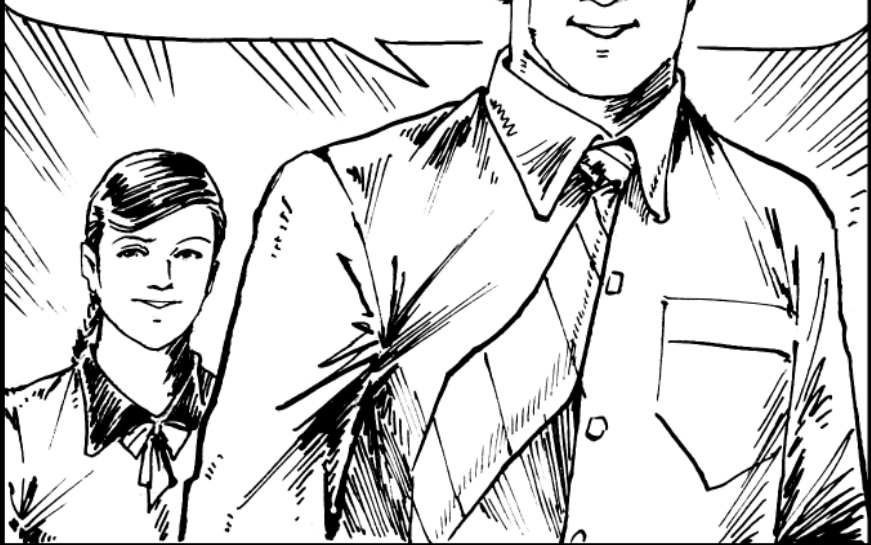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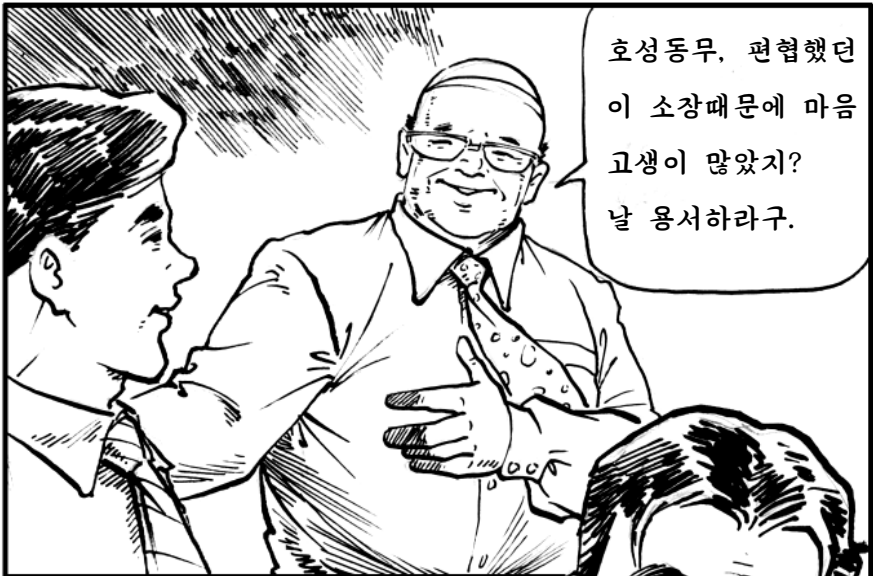
언니, 저기
아버지가?…

아! 이렇게
끝나는가?…

담당부위원장의 탈을 쓴 《쏘가리》, 해방후 지주였던 네 애비를 관대하게 처리해준 우리 공화국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갈 대신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린 악독한 계급적원쑤!
네놈이 지은 죄를 네가 더 잘 알겠지?

계급적원쑤놈들을 끌어가시오.

난 역시 《쏘가리》밖에 안되는 놈이였구나.

오늘 최종시험을 하게 됩니다. 전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새 세대 과학자들이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닐 때 우리의 과학성과 하나하나가 다 조국의 굳건한 성돌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새기게 되였습니다.

호성동무, 편협했던
이 소장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았지?
날 용서하라구.
자, 최종시험단추를 어서 누르
라구.
예? 제가 말
입니까?

호성의 눈앞에는 오늘의 성공을 위해 남모르게 자신들을 바쳐온 전사들의 숨은 노력이 영화화면처럼 흘러갔다.

성공의 만세소
리가 참 듣기
좋구만.
호성동무를 축하해
주고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벽— 이 굳건한 성벽이 있어 우리 조국은
더욱더 강성번영할 래일로 힘차게 전진하는것이다.